수산 1번지 전남, 日 오염수 방류 '거센 반대 물결'

도의회 농수위, 반대 서명운동 첫날 300명 동참… 도 "적극대응"

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목포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전남도의회 제공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수산 1번지'인 전남에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 완도2)는 제37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7일 목포역과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에 터미널을 왕래하는 도민들의 서명 참여도 뜨거웠다. 첫날 서명에 도민 300여명이 참여했다.

범국민 서명운동을 주도한 신의준 위원장은 "전 세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아무런 성과 없이 일본의 편에 선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과거 2013년 발생한 원전 오염수 누출 때에도 40%가량 수산물 소비 침체를 경험했고, 이번 오염수 방류는 그때의 일시적인 방류와 차원을 달리한 장기적인 문제로 어떻게 수산업계에 타격을 줄지 짐작조차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오염된 수입 수산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도 문제지만, 우리의 수산업과 바다 관련 모든 생태계가 모조리 위협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서명 운동에 동참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과 반대의사를 체감할 수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수산인의 보호를 위해 농수산위원회 차원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 촉구 건의안(제367회 임시회), 후쿠시마 선박 평형수 국내 배출 저지 촉구 건의안(제369회 임시회) 채택 등 도민 안전과 생명, 특히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전남도도 부산·울산·경남, 제주와 함께 5개 시·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9월22일부터 전남 수산물 안전생산 관리대책 수립을 위해 4개팀·8명으로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방류 전·중·후로 단계별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방류 전 대응으론 정부에 수산물 전품목(1000건 이상)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해수감시 확대', '사전수매·비축',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건의했다.

방류 후에는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와 피해 보전금 지급을 건의하고, 소비위축 수산물의 정부 수매 건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주기적 안전성 검증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정책 건의도 추진한다. 전남도는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법·종합대책 마련', '수산물 사전수매(양식포함) 확대', '유통이력관리·원산지표시 강화', '소비위축 손실보상금 실시계획 수립', '해역 분석자료 방송 자막 제공'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국세·지방세 '뚝'…'

1면서 계속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고 집값이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 감축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올해 예산안을 짤 당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낙관 속에 예산을 확대 편성했지만 시장의 회복세가 더뎌 집값과 직결되는 국·지방세 세수가 덜 들어온 탓이다. 게다가 경제성장세 후퇴까지 겹쳤지만 중앙정부의 재정 상황도 좋지 않아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 분위기는 지난 2월부터 지속되고 있고 나아질 기미도 없다"며 "세수가 줄면서 세출부터 줄여야 하는 실정 탓에 올해 첫 추경을 최소한으로 잡은 것도 세수 확보의 불안감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 "오염수, 국제해양법 재판소 잠정조치 청구하자"

국민의힘에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추진과 관련,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잠정 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는 2021년 6월 국회에서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고 오염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이 결의안이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 때문에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새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잠정조치 재판은 한달가량이면 판단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태평양의 피지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 안에 두라고 일갈하고 있다. 정부는 피지 정부를 본받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위험성도 거듭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전세계가 폐기물을 자국에 놓는데, 왜 일본은 바다에 방류하려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안 된다'고 해야 한다. 안 그러면 국민은 내년에 국민의힘을 폐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민투표로 정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추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방침을 국민 모두의 뜻을 모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월 국회가 여야 합의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투표 건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확대회의를 열고, 확산하는 국민 불안 해소에 주력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괴담,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에는 유국희 후쿠시마 시찰단장을 비롯해 외교, 과기, 환경, 해수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총출동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로 우리 어민 다 죽는다며 증명되지도 않는 괴담을 주장했다"며 "마치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당장 광우병 걸리고 다 죽는다는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말하는 법 1%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며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각 분야별 강사 파견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봄에 떠나는 그리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 + 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